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주시, 화폐 수급업무 복원 나선다

광주전남·대전충남본부 이용 관계로 화폐 원거리 수송비용·위험 부담 불편

전주시가 시민들의 자존심 회복과 금융산업도시 완성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업무 복원에 나섰다.

화폐수급업무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전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환수하는 업무로, 지난 2012년 2월 한국은행의 조직 및 인력 개편으로 인해 전북본부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5대 광역본부로 통·폐합됐다.

전주시는 27일 전주시 소재 금융기관 및 지점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지역 산업계와 정치권 등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소재 금융기관·지점 대표들이 27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소재 금융기관·지점 대표들이 27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원거리 화폐수송에 따른 비용발생과 위험 부담 등을 안고 있다.

또 화폐 매입과 신권서비스 제공 등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전북과 광주·전남을 관할하는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본사, 행정기관 등 90% 이상이 광주에 편중된 데다 화폐수급업무까지 광주전남본부가 통괄되면서 전주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 또한 전주는 지난해 5월 국민연금공단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오는 2017년 2월로 예정된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전주시민들은 물론 전북도민들을 먹여 살릴 금융산업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어 한

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가 절실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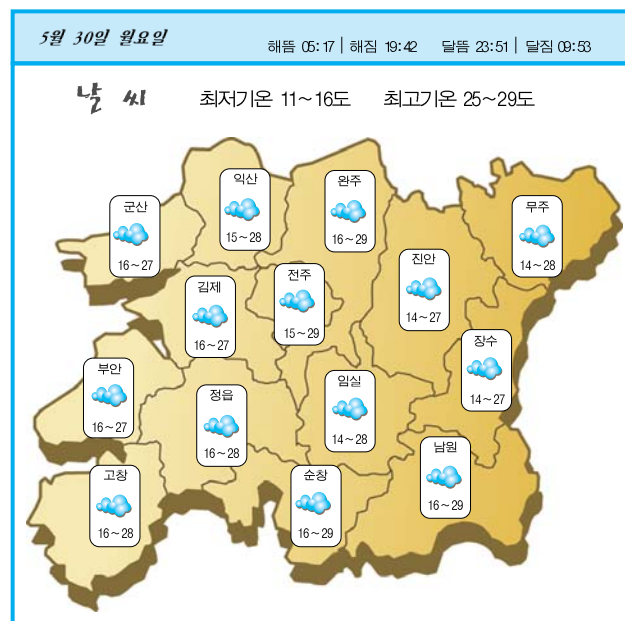
더욱이 전주는 국내 3대 지방은행이자 인천과 경기, 충청, 호남을 통틀어 서부권역 유일의 지방금융지주사인 전북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위치해 있지만 원활한 화폐수급이 어려워 지역 내 자금 과부족 해소 등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발휘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전북지역 금융사무가 꾸준히 급증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과 전북은행(UB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기관의 검사감독권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전주시사무소를 전주지원으로 승격시켰다.

앞서 한국은행은 전북본부와 함께 지난 2012년 조직 및 인력 개편 당시 화폐수급업무가 중단된 지역 중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의 화폐수급업무를 최근 재개기로 하면서 전주시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복원업무 재개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 금융기관들의 불편해소와 전북도민들의 자존감 회복, 호남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지역 금융권과 상공회의소, 정치권 등과 함께 최대한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내달부터 서울 주요대학 등 도내 입시 설명회 개최

내달부터 대입 설명회가 잇따라 추진된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학년도 대입 전형을 안내하고 맞춤형 진학 지도를 위해 서울 소재 주요대학 등 입시 설명회를 내달 개최한다.

우선 4일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입시 설명회가 전북교육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는 두 대학 입학사정관이 입학 전형과 변경사항을 안내한다.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 가능하다.

11일에는 전북지역 주요 대학 입학 전형 설명회가 전북교육청 2층 대강

당에서 열린다. 이날에는 군산대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전북대 등 5개 대학 입학 전형형을 소개한다.

또 12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와 한국외국어대, 이화여대, 서강대 입학 전형 설명회가 전북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을 맞이한다.

19일에는 육사와 성균관대, 경희대, 한양대 입학 설명회가 전북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준비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고민형기자

전북대, 목재문화활성화사업 2년 연속 선정

연말까지 초·중등 교원 대상 목공체험 교육 실시 예정

전북대가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에 두 팔을 걷는다.

29일 전북대(총장 이남호)에 따르면 산학협력이 지원하고 목재문화진흥회가 주관하는 '목재문화활성화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목공 건축 관련 다양한 교육 사업을 펼친다.

이에 김광철 교수팀(생활대 주거환경학과)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7개월 동안 전북지역 초·중등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목공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의 특징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와 국산재의 활용 등 연수 이후 각 학교에서 적용 가

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응용과정에서는 목구조재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중점적으로 다루 연수 참가자들의 요구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옥 등 국내 목조건축 분야 메카로 자리매김한 전북대의 위상을 외부에 알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번 교육으로 친환경 대표 소재인 목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목재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들의 수요는 충분히 확인했던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 동네빵집들 협동조합으로 뭉쳐 새롭게 출발

창립총회 개최...건강한 먹거리 문화조성·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목표로 경영 위기 타개

"골목골목의 동네빵집들은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동네의 사랑방입니다." 온두레공동체 '동네빵집 사람들'의 회원들로 구성된 전주의 동네빵집들이 상부상조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전주동네빵집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규모 영세 자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빵집들이 27일 전주시 혁신센터에서 '서로의 경험과 의지를 모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동조합

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을 골자로 전주 동네빵집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전주동네빵집 협동조합은 동네빵집의 경영자, 재료업체, 교육기관 관계자, 소비자 등 동네빵집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건강한 먹거리 문화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조합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전주동네빵집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배경의 중심에는 전주 제과제빵 1호점 '동그라미제과'가 자리하고 있

다. 동그라미제과는 지난 1986년도에 개업한 이래 60여 년간 전주 영화의 거리를 지켜온 제과점으로 전주시민의 추억과 애환이 서린 곳이다.

하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제과점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어 지난해 연말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전주시와 제과제빵인들이 동그라미제과의 명맥을 잇고 대규모 유통자본과 프랜차이즈에 밀려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동네빵집들의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보

자는데 뜻을 모았다. 경기 불황 타개를 위해 의기투합한 동네빵집들은 전주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으로 뭉쳐 새롭게 출발했다.

전주동네빵집 협동조합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임재호 회장은 "앞으로 재료구매, 생산 유통, 마케팅 등의 협업과 함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신규 제품 개발 등을 통해 동네빵집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네빵집을 동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민간의 공간으로 바꿔가면서 지역사회의 상생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